

사순 제3주일

<다해>

시편 103(102), 1-2. 3-4. 6-7. 8과 11(© 8ㄱ)

손상오 신부 작곡

느리게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 그 러 우 시 - 네.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 내 안의 모든 것도, 거룩하신 그이름 찬미하여 라
 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
 3.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 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 네.
 4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 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 네.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 그분의 온갖은혜하나도 잊지 마 라
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
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 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 네.
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 넘치네.

D.C.